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그 길을 따라 걷다 - 다시 걷는 은총의 발걸음

금왕 성당 김진복 켄마

최양업 신부님이 탄생하신지 200년, 그분이 이 땅의 박해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걸으신지 17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 분을 따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신부님을 따라 걸으며 모든 곳, 모든 순간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저는 거룩한 은총을 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1년 2월 27일 겨울

베론 성지는 신유박해 이후 교우들이 옹기점을 운영하면서 첫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곳으로, 최양업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설경을 느끼며 산 길을 따라 올라 신부님의 묘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팔순을 눈 앞에 뒀고 지친,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 양입니다. 추운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돌아, 다시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1년 반의 기간 동안 200년의 시간차를 두고, 길 위의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의 순례 길은 이렇게 배론에서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21년 5월 15일 봄

봄이 오고,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5월이 되어서야 겨우 봉암 공소와 배티성지에 찾아 갔습니다. 두 곳은 모두 신부님이 신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을 만리타향인 폐향으로 고난의 유학길을 보내셨던 곳입니다. 특히 배티성지는 신부님의 사목 중심지이자 본당의 역할을 해준 귀한 자리입니다. 항상 고된 사목 순방이 끝난 후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 이곳에서 쉬운 천주가사를 짓고 한글 기도서도 지으셨다 하니, 길 위에 계시든, 아니 계시든 한순간도 이 땅의 교인들을 잊지 않으신 듯하여 저절로 숙연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1년 7월 17일 여름

땀이 줄줄 흐르던 여름날, 아산 남방재에서 조화서 베드로 성인을 만났습니다. 복자로서, 마부로서 신부님의 고단한 길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성인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 의지하며 역사를 지으신 그 아름다운 두 마음을 오롯이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21년 7월 25일-27일

급해진 마음, 더 많은 곳에서 신부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2박3일의 일정으로 보은의 멩에목 교우촌을 시작으로, 다락골 새터, 도양골, 군산 신시도를 걸었습니다. 멩에목 성지에는 작은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가운데에는 특별하게도 아기에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님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반다리로 앉아 아기를 안고 계시는 성모님의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위치가 성당이나 공소가 아니라 전통적인 정자라니.. 문득, 신부님의 눈에는 아이를 안은 가난하고 다소 초라해 보이는 그 시대 교인의 모습이 모두 저렇게 성스럽고 귀해 보였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으신 것이겠죠. 다락골은 병인박해를 겪으며 순교하신 37기가 모여져 있습니다. 무명의 순교자분들의 자리에서는 왜인지 더욱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최양업 신부님과 부친인 최경환 성인께서 태어난 곳이니 더 경건해지는 마음입니다. 이어 방문한 부여 도양골 교우촌은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길을 잘 못 들었나? 생각하며 오를 만큼 험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신부님이 처음으로 열 달 동안 전국을 순방하시고, 첫 번째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신 의미 있는 곳입니다. 깊고 깊은 산 속에, 모든 부귀와 안락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모여든 교우들을 보면서 신부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교우들은 그 깊고 험한 도양골까지 찾아오신 신부님을 우려했겠지만, 되려 더 많은 은총과 감화를 받으신 건 신부님이 아니셨을까 감히 그 감동을 헤아려보게 됩니다. 여름 순례의 마지막은 군산의 신시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운 고국에 돌아왔다는 마음과, 내 조국 땅을 마음대로 밟을 수 없었던 신부님의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마음 가득한 뿌듯함으로, 신부님과 함께 걷는 여름을 마감합니다.

21년 10월 9일-10일 가을

충청남도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부산은 너무 낯선 곳입니다. 아마 같은 고장에서 나고 자라셨던 신부님도 부산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감정이 아니셨을까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단풍이 제법 물든 10월, 처음 걸었던 곳은 부산의 수영 장대 순교지와 오륜대 묘역이었습니다. 병인박해의 모진 고문에도 의연히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교우들의 신심은 언제나 새로운 감동과 함께, 조금이라도 그 정신이 제게도 깃들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어 김영제 베드로와 김 아가다가 순교한 아주 작은 성지인 울산 죽림의 살티공소를 들렸습니다. 김영제 베드로는 술한 박해를 겪으며 9개월간의 고문으로 불구의 몸이 되었어도, 이곳에 공소를 설립하여 마지막까지 교우들을 돌보았습니다. 동생인 김아가다 또한 신부님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도 굳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기다 겨우 26살의 젊은 나이로 선종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마지막을 최양업 신부님의 임종경과 함께 했다하니, 천국에서 평안히 저를 바라보고 계실듯하여 안쓰럽고 안타까웠던 잠깐의 제 마음도 온화한 평화를 얻는 듯합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 경주 진목정도 걸어봅니다. 순교하신 세 분 복자의 묘소에 인사드리고, 떠나기 전 아담한 마당 가장자리 마련된 십자가의 길 14처도 찬찬히 돌아보

며 여운을 느껴봅니다.

22년 1월 5일 다시 겨울

안양의 수리산 교우촌은 신부님의 부모님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이성례 마리아 복자님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례자성당 입구에 쓰여있는 시편의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저절로 새겨 집니다.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한 두 분의 굳은 믿음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통해 그 열 수십 배의 교우들을 영광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신부님이 평생을 걸은 그 길과 발자취를 통해 백배, 천배의 교우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이셨으니, 아마 두 성인께서는 더 없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어봅니다.

22년 4월 30일 따사로운 봄

신부님과 함께 걷는 장도의 마지막은 서울좌포도청과 종로성당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천주교 박해의 가슴 아픈 기간에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름과 사연이 밝혀져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님들의 성심과 신앙은 아무리 우러르고 찬양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평화 속에 기도하고 신실한 믿음을 이어나가는 은혜로움은 포도청에서, 성당에서, 교우촌에서 이름 없이 순교한 수백 수천의 신앙 선조분들 덕임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필연인지, 우연인지 신부님이 이 길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인도한 곳은 신부님의 어머니인 이성례 마리아께서 순교하신 서울 당고개 성지입니다. 살점이 찢기는 고문과 회유 속에서 옥 밖의 젓먹이와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체포되어 배교를 취소하고 결국 순교의 길을 택하셨다 합니다. 저 또한 세 아이를 키운 어미의 심정으로 감히 복자님이 견뎌냈을 가슴아픈 고뇌, 진실된 성가정의 의미와 순교를 선택하신 위대한 신앙을 어렴풋이 헤아려봅니다. 그 강인한 마음을 토양 삼아, 최양업 신부님의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음이 틀림없으니, 1년 남짓하게 이어진 신부님을 따른 저의 걸음의 이곳에서 잠시 멈춘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은 다시 시작으로 이어져야겠지요.

박해라는 엄혹한 어둠의 시절, 이 땅의 방방곡곡을 숨어 걸으며 조선의 양떼들에게 선교의 등불을 밝히셨던 최양업 신부님. 신부님의 모든 성지와 고난의 흔적을 순례하며, 그 흘리신 땀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신부님을 만난 교우들이 가졌을 믿음과 희망의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깊은지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신부님을 따라 벽찬 마음으로 걸은 걸음이 나 하나의 감동과 성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작지만 소중한 사명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모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가경자 신분인 신부님에게 또 한 번의 기적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신부님의 걸음이 이렇게 제 작은 걸음으로 이어지고, 신부님이 행한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지금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걸으려는 제 마음에 울림을 남긴 것 자체가 기적인 듯싶습니다. 이제 저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걸으며, 참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 합니다. 신부님의 은총과 기도가 언제나 함께 하는 두려움 없는 길을 다시 한번 함께 걸어볼까요.